

해방후 주체적인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

공 영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수령님의 군건설로 선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은 참으로 큼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83페이지)

해방후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새 조선건설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였다.

당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데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나섰다.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군사정치간부가 부족하였으며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물질적토대도 매우 미약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쏘련군대가 북조선에 있는데 무엇때문에 군대를 조직하려 하는가고 시비하였으며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자체의 힘으로 정규군을 창설할수 없으며 아직 남북이 통일되지 못했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고 하면서 정규무력건설을 반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군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자체의 힘으로 정규무력건설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로선을 받들어 정규무력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군사정치간부양성과 군종, 병종부대들의 조직, 군대의 무장장비 등 군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주체적인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은 무엇보다도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교육사업을 우리 식대로 진행하도록 하시여 정규군건설의 핵심부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신것이다.

군사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주체적인 혁명군대의 지휘관을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군사교육기관에 있던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군사교육은 범벅식이였으며 다른 나라 군사학교의 교재를 번역하여 그대로 리용하고있었다. 포병학만 보아도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곡사포가 아니라 평지가 많은 나라들에서 리용되는 평사포에 대하여 배워주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주체36(1947)년 5월 중앙보안간부학교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는 군사교육을 우리 식으로 전환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학교의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학교교육을 《중국식》으로 하자느니, 《쏘련식》으로 하자느니, 또 어느 나라 식으로 하자느니 하면서 론의가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에 새형의 군대를 창건하자는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그 어느 나라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어 교육강령을 잘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정규군대를 하루속히 창건하자면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교육기간을 다른 나라와 같이 3년이 아니라 정세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1년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실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처음 내올 때 일부 사람들은 선진국가들에서도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받아 3년동안 군사교육을 주어야 겨우 지휘관을 양성해내는데 우리가 문맹이나 면한 노동자, 농민출신의 청년들을 받아 그것도 1년동안에 군사지휘관을 키워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시비하였다.

주체35(1946)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식대로 3개월간 예비학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에 일반기술지식과 기술군사교육을 주며 그후 1년동안에 군사지휘관을 키워낼데 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일군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켜주시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강령이 작성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정규무력건설의 골간으로 될 핵심들을 믿음직하게 키워낼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군사학교들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창설된 초기 일부 교직원들속에서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교육하자고 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의 주장에 맹종맹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8월 중앙보안간부학교에 항일혁명투사들을 책임일군으로 파견하시면서 학교에 가서 해야 할 임무를 밝혀주시고 군사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중앙보안간부학교 교무부교장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중앙보안간부학교에 파견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것은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군사지식과 함께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 맞는 독창적인 유격전법을 가르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주체36(1947)년 7월 또다시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 군사교육의 본을 따려고 하는 현상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식으로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배워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출신 교원들에게 동무들은 여기서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군관학교때부터 학생들을 똑바로 교육해야 그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동요없이 우리 군대를 자기 식대로 훈련시킬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적극 옹호관철해나간 그 정신으로 군사교육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건군위업을 받들어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군사교육이 우리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짧은 기

간에 정규군건설의 핵심부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주체적인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은 다음으로 군사규정과 교범작성, 군복문제를 우리 식대로 해결하도록 하시여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는데 적극 기여하신것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의 규정과 교범을 작성하며 정규군대의 면모에 맞는 군복을 빨리 제작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군사규정과 교범도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였으며 따라서 내무규정, 위수규정에도 다른 나라의것이 반영되고있었다. 대렬훈련만 보아도 다른 나라의 군사규범을 그대로 모방하여 구령을 치면서 훈련시키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사규정과 교범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두시였다.

주체37(1948)년 1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대의 주식을 빵으로 하자는 의견을 들으시고 우리 군대는 조선사람풍습대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빵은 우리 사람들의 오랜 식생활구미에도 맞지 않으며 현실성도 없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대의 주식문제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대로 우리의 것과 우리 식을 적극 내세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군복을 우리 식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군복이 제정되지 않아 군인들의 옷차림은 각양각색이였다. 병사이건 지휘관이건 할것없이 입대할 때 입었던 각양각색의 옷을 그대로 입고있었고 지어 로획한 일본군복을 입은 군인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통을 살려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민족적특성과 생활감정에도 맞으며 전투행동에도 편리한 우리 식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원칙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우리 식의 군복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부터 연구하며 군복도안을 성별, 직급, 군종과 병종의 특성에 맞게 만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여러차례 피복공장에 나가시여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알려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시였다.

주체36(1947)년 2월 피복공장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병사여름복도안에서 옷옷의 목깃을 제껴놓게 하고 앞에 전포를 달게 하였는데 아주 좋다고, 옷옷의 팔소매 끝부분과 바지아래기슭에 단을 달고 단추를 채우게 한것이 보기에 단정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바지아래기슭단을 넓히고 가랭이는 좀 좁혀야 한다고 지적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군인들의 치마를 우리 식대로 만들기 위하여 사색을 거둡히고 치마에 주름을 잡아주며 밑이 퍼지게 만들데 대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맛이 나면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녀성군인치마가 완성되였다.

우리의 정규적혁명무력이 조직되던 첫 시기부터 모든 사업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게 된데는 이렇듯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활동이 깃들어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주체적인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은 다음으로 군보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신것이다.

군보창간은 자주독립국가군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주독립국가의 군대라면 마땅히 자기의 신문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보창간준비사업을 다그치며 각 보안간부훈련소들에서 신문을 시험적으로 발간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신문이 시험적으로 발간되었지만 신문사일군들의 정치실무적수준이 낮은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소개되고 지어 다른 나라 신문을 모방하는 기사들까지 나가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신문을 잘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고리가 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이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7월 신문사에 나오시여 책임주필, 기자, 편집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인민군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신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신문은 군인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참다운 교양자가 되여야 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우리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은 신문사일군들에게 군보의 성격과 사명, 군보의 기본편집방향을 명확히 인식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안목을 키워주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군보창간호를 빨리 만들어내놓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7월 신문사에 나오시여 신문사일군들이 세운 창간호편집방향을 보아주시며 빨리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문의 1면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모시고 제호아래에는 열병식에서 하신 수령님의 연설에서 인민군대의 기본과업에 대하여 밝힌 명제를 모실데 대해서와 2면에 인민군군인들의 사진을 더 실을데 대한 문제, 3면에 인민군대창건과 관련한 인민들의 반향자료를 줄데 대한 문제, 4면에는 독도참살사건을 폭로하는 계급교양자료 같은것을 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7월 10일 군보 《조선인민군》이 창간되었다.

군보 《조선인민군》의 창간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창간된 군보가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힘있는 수단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군보가 창간된 후 우리 나라에서는 군인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시, 소설창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군인들속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문예물들이 많이 창작되어 투고되고있었으나 그것을 실으려 하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과 편집원들은 다른 나라의 문예물들과 기사들을 숭상하면서 그것을 번역하여 내보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보가 우리의것, 특히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적극 선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민군신문에 다른 나라 빨찌산들의 투쟁수기를 련재하고있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시기 자료들을 군보에 적극 소개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보의 고정표제를 《김일성장군항일유격전 실화》로 정하고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이야기를 련재하여 실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군보에 처음으로 《눈보라속의 매복전》이 실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새벽 신문을 받아보시고 인민군신문이 우리 나라 신문들 가운데서 제일먼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를 실었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후 군보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투쟁자료들이 련이어 실리게 되었으며 특히 주체 38(1949)년 6월에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 대한 내용이 실려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주체적인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은 다음으로 자체의 강력한 국방공업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것이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군수산업의 토대가 없었다. 병기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금도 없었고 기술자, 기능공도 부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0월초 평양시 평천리에 우리 나라의 첫 병기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건물복구와 공장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자체의 힘으로 병기공장을 복구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주시였다.

병기공장건설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무기를 만들어본 경험도, 기술자도 없는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자체로 병기공장을 건설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겠는가고 시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체의 힘으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병기공장을 하루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기공장을 건설하는것을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자체의 힘으로 무기수리소를 꾸리고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 침략자들을 족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병기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당과 인민정권이 있으며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고 신심을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병기공장에 나가시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다그쳐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병기공장건설과 무기생산을 위한 준비사업을 립체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36(1947)년 6월 드디어 우리 나라에 첫 병기공장이 일떠서고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생산해내게 되였다.

첫 병기공장의 창립은 주체적국방공업의 창설을 새 조선건설의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병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기관단총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결사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주체36(1947)년 10월 병기공장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관단총 시제품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기관단총의 총신과 총가목, 복좌용수도 모두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관단총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은 병기공장로동계급을 찾وسی고 모든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병기공장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끝끝내 우리 나라의 자재로 복좌용수와 총가목을 만들어내고 기관단총생산에서 제일 난문제로 나섰던 문제도 해결하여 우리 힘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함선들을 만들어 해군무력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러차례 현지에 나가시여 함선무이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주체37(1948)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200t급 경비함에 오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탄약창고와 취사장, 기관실, 병실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군함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군함은 큰것보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작으면서도 빠르고 위력한 무장장비를 갖춘 군함이 더 좋다고, 이런 군함을 만드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의 군함건조원칙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계속하여 우리는 해군간부들을 키워내거나 군함을 만들고 해군기지를 꾸리는데서 남의 나라의 것을 본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후 우리의 로동계급은 경비함 《로동》호를 훌륭히 완성하여 해군부대에 보내주었으며 850t급 소해함을 진수하고 경비함 51호, 52호 등을 편이어 해군부대들에 장비시킴으로써 해군무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사상을 충정으로 받들어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첫 로정에 남기신 불멸의 공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정규무력건설, 국방공업